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평균 미달

안전사고 급증 불구 52%에 그쳐...중학교는 고작 27.3%로 전국 최저

전북지역 학교안전사고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세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28일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0곳 중 4곳 가량은 아예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이 발표한 교육부 '전국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768곳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99곳으로 배치율이 52.0%에 그쳤다. 전국 평균 배치율이 63.9%보다 11.9%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나마 이마저도 2011년 55.6%에 비해 3.6%p 하락했다.

특히 전북지역 초중고 등 학교 가운데 유독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도내 전체 중학교 209곳 중 단 57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돼있어 27.3%라는 전국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 보건교사 평균

배치율 50.7%의 절반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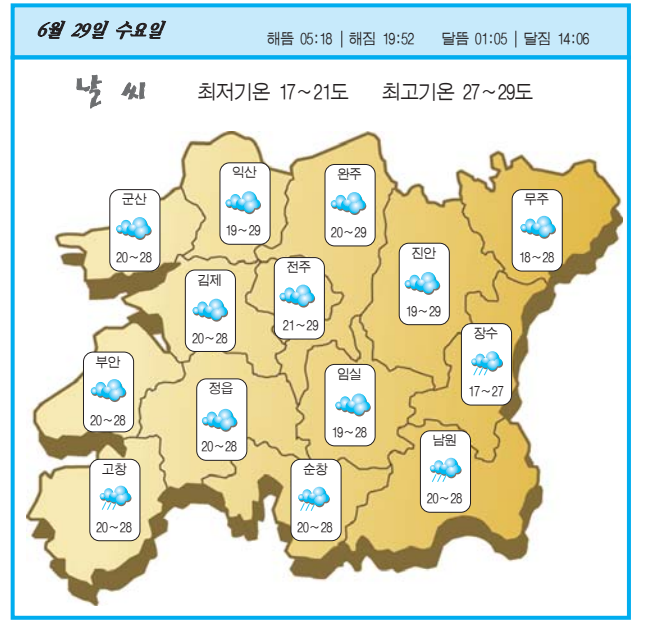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전남(30.0%)과 세종(30.8%), 경남(30.8%), 충남(32.8%), 강원(34.6%), 충북(36.7%)이 40%가 안 되는 배치율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2011년~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 학교안전사고 발생통계'를 보면, 2011년 3,508건에서 2012년 3,688건, 2013년 3,686건, 2014년 4,172건, 2015년 4,502건으로 연평균 5.7%씩 증가했다.

전북 학교 안전사고는 2011년에 비해 28.3%가 증가하며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안전사고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현재 보건교사 배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현행법 '학교보건법' 제15조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가 없을시 평상시 학생 보건과 관련한 예방조치가 매우 미흡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 것"이라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지역문화지수'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27개 평가항목 조사 문화정책·활동 등 4개 대분류 모두 높은점수

전주시가 국내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민의 전반적인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정책 수립·추진과 문화 자원 보전·구축·관리, 문화활동 및 문화향유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로 전주시가 국내 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문화특별시임을 재확인했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대행 김성진)이 발표한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에서 전주시가 국내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 통합 전체 지역문화지수 1위를 차지했다. 경기 수원시와 경남 창원시가 각각 종합순위 2~3위를 차지해 전주시의 뒤를 이었다.

이번 결과는 전주시가 민선 6기 들어 대한민국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정책을 활발히 펼쳐온 결과물로 풀이된다.

시는 문화정책과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 대분류, 총 27개 평가항목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4개 대분류 모두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전주시는 지역문화 정책수립 및 실행, 정책 환경, 문화예산 정도 등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28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의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식에 송하진도시사와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평가하는 문화정책 분야와 기초자치단체 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및 활동현황과 활동인력 등을 평가한 문화활동 등 2개 분야에서는 각각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전주시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문화관광 사업 선정 건수 △다문화가족 지원운영 예산 편성·집행 △문화관광 해설사 △지역문화 전문인력 규모 등의 항목 값이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2012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연구 결과'의 지역문화지수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시는 3년 만에 5계단이나 경천 뛰어오른 전국 1위를 차지하며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전주'의 위상을 전국에 떨쳤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2013년 지역문화지수 평가 당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문화정책, 문화인프라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으로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지역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강화시켜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문화특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구진회 팀장 교육부 장관상 수상

도서관 이용시설·시스템 안정화 기여



전북대학교는 중앙도서관 구진회 팀장이 대학도서관 진흥기반 조성사업과 학술정보 공유 등에 기여한 공로로 '2016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1993년부터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한 구 팀장은 전북대 신축 도서관 개관 이후 도서관 이용 시설과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최적화된 도서관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데 공헌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이 대학의 학문연구 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와 학습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발해 이용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를 통해 교수들의 연구 경쟁력과 학생들의 학습 역량이 크게 높아지는 등 대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팀장은 "대학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많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교육청, 유치원·초등학생 수족구병 주의 당부

유치원과 초등학생에 대한 수족구병 주의보가 내려졌다.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근 수족구병 발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예방관리에 철저지 기할 것을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직접 접촉이나 타액,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전파되며 발열과 설사, 구토, 수포(물집)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전염병이다.

나이스 등을 통해 각급 학교의 감

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외출·배변 후 식사 전후 손 씻기 ▲장난감 등을 청결히 하기,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세탁하기, ▲유사증상 의심되면 즉각 진료 및 자가 격리하기 등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